

여야, 연금 대타협기구·자원외교 국조 합의

‘2+2 회동’ 국정현안 포괄협상 ...4대강 국조는 합의 못해

정개특위 운영·개헌특위 구성 등 나머지는 추후 논의키로

여야는 10일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실행 파약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

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시20분부터 약 한 시간 10분 동안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른바 ‘2+2 회동’을 가졌다”며 “크게 네 가지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 대타협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특위를 가동, ‘투트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기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졌다. 이른바 빅딜설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여의도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진이(진 이명박)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또 정개특위구성과 운영, 개헌특위구성 등 이날 합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4대강 국정조사’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석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만하게 다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좋은 합의가 돼 국민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정치해서 멋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도 “4자방, 공무원연금 개혁, 국정농단 등에 대해 애기도 통탄하게 나눌 것”이라면서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일괄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상일이 바람대로 안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여야 2+2 회동에서 상대방 대표에게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 김무성 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 원내.

/연합뉴스

새정치 지도부,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 표명

與 “헌재에 압력...부적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사실상 해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종북 논란과 선 긋기를 위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해산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전날 시민사회·종교계 원로

들의 지원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연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을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

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어록과 독일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콜라 목사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시를 인용,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현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인용한 시 구절은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이다.

문재인 비대위원장도 박근혜정부의 인권 수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늘 근본 없는 놈 취급긴 세월 동안 외로웠다”

‘청와대 문건’ 묘사 관련 이정현 최고 SNS에 심경 토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유출 문건에서 자신이 ‘근본 없는 놈’으로 묘사된 것과 관련, “기분은 영 거시기 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10일 이 최고위원이 전날(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빈충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돌이켜보면 당혹스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이정현은 근본 없는 놈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면서 “새누리당 놈이 호남에서 19년 동안 네 번이나 출마하고, 호남 놈이 새누리당에서 30여년을 활동했던 사람이 이 진실을 알면 그분 기분도 나처럼 영 ‘거시기’ 할까”라며 “이정현은 이정현 다올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정현은 존놈이고 그것이 이정현 다올이다. 어쩔건데”라며 글을 맺었다.

또 “나는 늘 혼자였다. 긴 세월 동안 나는 참으로 외로웠다”며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느낀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도 근본 없는 놈에게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준 순천·곡성 분들의 격려가 너무 고맙다”며 “근본 없는 놈에게 청와대 수석 두 번, 집권당 최고위원 두 번, 국회의원 두 번의 기회를 주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한없이 고맙다”고 적었다.

그는 “근본 없는 놈이란 눈총이 나를 더 단련시켰다는 것,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진실을 알면 그분 기분도 나처럼 영 ‘거시기’ 할까”라며 “이정현은 이정현 다올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정현은 존놈이고 그것이 이정현 다올이다. 어쩔건데”라며 글을 맺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친인척 관리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

여야 입장 엇갈려 난항 거듭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이 시작됐지만 쟁점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10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양측 후보를 내놓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회의에서 기존 민경한·임수빈 변호사를 재추천했고 새누리당은 이석수·정연복 변호사를 새로 추천했다.

여야는 특히 4명의 후보 중 3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 후보를 배제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검증을 거쳐 좋은 사람을 선정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여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제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경력 등을 문제삼아 거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야당 몫 민경한·임수빈 변호사와 여당 몫 조국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감찰관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 경력을 문제삼으며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3명의 후보자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지만 양측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국회 의결이 이뤄진 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 임명까지 이르려면, 특별감찰관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법 제정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점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법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법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010-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